

## 통시적 원형경관 해석을 통해 본 강진 백운동 원림의 복원 방향<sup>†</sup>

하혜경<sup>\*</sup> · 소현수<sup>\*\*</sup>

<sup>\*</sup>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 <sup>\*\*</sup>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storation for Baegun-dong Garden in Gangjin through a Diachronic Interpretation of the Prototype Scenery

Ha, Hye-Kyung<sup>\*</sup> · So, Hyun-Su<sup>\*\*</sup>

<sup>\*</sup>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sup>\*\*</sup>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In this study, the original scenery of Baegun-dong Garden in Gangjin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reconstructed site to suggest directions for restoration in the future. The diachronic prototype scenery of the Baegun-dong Garden was derived by integrating the elements of the original and contemporary prototype sceneries from the old poetry series. The old poetry series is comprised of 「Baegun-dong 8Yeong(詠)」 by Lee Damro(李聃老), 「Baegun-dong 10Su(首)」 by Song Ikhwi(宋翼輝), 「Baegun-dong 12Gyeong (景)」 by Jeong Yakyong(丁若鏞), and 「Baegun-dong 14Gyeong」 by Lee Siheon(李時憲). Guidance for directions for future restoration was sugges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diachronic prototype scenery of Baegun-dong Garden and the current scenery of the restored site.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prototype scenery of Baegun-dong Garden was a harmonic view composed of the camellia forest road, 'Baegun-dong' the letter carved on a rock, a cliff 'Changhabyeok(蒼霞壁)' the red letter written by Jeong Yakyong, paulownia trees, waterfalls and a maple forest. Outside the Byeolsoe(別墅), there were a red plum blossom forest, a pine forest, and a bamboo forest, as well as the view of Okpanbong(玉版峯) from Jeongseondae(停仙臺). In the yard, there were Chwimiseonbang(翠微禪房), Jug-gak(竹閣), Pyeongsang(榻), a lotus Bangji(方池), Gogsugeo(曲水渠) and Hwagye(花階). Cranes were even raised in the yard. Second, comparing the diachronic prototype scenery of Baegun-dong Garden with its restored site, following a restoration guide is suggested. There should be more water flow in Baegun-dong Valley and Jug-gak should be restored. 'Changhabyeok' the red letter should be carved on the stone wall. Trees should be controlled for a better view of Okpanbong from Jeongseondae. More trees and plants, such as red plum blossom, pine tree, paulownia trees, azaleas(映山紅), chrysanthemum, orchid, daffodil, and lotus should be planted in the yard. A system of integrated guide boards is also required for effective information transmission for visitors.

<sup>†</sup>: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yun-Su S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so@uos.ac.kr](mailto:hssso@uos.ac.kr)

*Key Words: Traditional Garden, Landscape Elements, Originality, Contemporary*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백운동 원림의 승경을 읊은 연작시(連作詩)로서 이담로(李聃老, 1627~1701)의 「백운동 8영」, 송익휘(宋翼輝, 1701~?)의 「백운동 10수」,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백운동 12경」과 이시헌(李時憲, 1803~1860)의 「백운동 14경」에서 시원적 원형경관과 시대적 원형경관의 구성요소들을 추출, 통합하여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였다. 이를 복원된 현장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복원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은 옥판봉 아래 계곡에 별서를 만들고, 동백나무 숲길, 이담로의 ‘백운동’ 바위글씨, 정약용이 붉은 글씨를 썼던 ‘창하벽’, 폭포와 단풍나무숲, 오동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였다. 별서 담장 밖에 홍매화숲, 소나무숲, 왕대나무숲이 있고, 옥판봉이 조망되는 정선대가 있었다. 별서 마당에는 취미선방, 죽각, 평상을 놓고, 연꽃이 심겨진 방지와 곡수거를 조성하였으며, 화계에 모란, 영산홍, 국화, 난초류, 수선화를 심고, 학을 키웠다. 둘째,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과 복원 현장을 비교한 결과, 백운동 계곡의 수원 확보, 죽각 복원과 ‘창하벽’ 바위글씨의 각인 및 정선대에서 옥판봉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홍매화, 소나무, 오동나무, 영산홍, 국화, 난초류, 수선화, 연꽃 등의 식재를 보강하여 다채로운 계절 경관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통합 안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전통원림, 경관요소, 시원성, 시대성*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유산협약(1972)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계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자 역사의 산물로서 전통조경과 관련하여 창덕궁(1997),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 40기(200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2010), 남한산성(2014)이 등록되었으며, 그밖에도 많은 전통조경공간들이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조경공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고(古)정원의 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공간의 복원이나 보존 정비 등이 대부분 건조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점경물이나 수경시설, 구조물 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결여된 양상을 보이므로, 이제는 원형경관 복원과 유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Lee *et al.*, 2015: 17).

또한 과거에 진행된 원형경관 복원에 관한 실체와 논리의 모순이 발견되는데, 소쇄원의 ‘위태롭지 않은’ 형태로 복원된 ‘투죽위교(透竹危橋)’와 기와를 엮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Ahn and Lee, 2014). Rho, *et al.*(2008)는 다산초당이 1958년과 1974년 두 차례의 재건 사업으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2001년 『백운첩(白雲帖, 1812)<sup>1)</sup>』이 발견됨으로써 여기에 수록된 「다산도(茶山圖)」를

근거로 하여 원형경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2)</sup>. 조선 시대에 조성된 현존하는 원림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식생은 물론이고, 작성자의 의도나 취향과 다른 경영 주체의 교체에 따라서 원림의 변형이 심하다(Lim and So, 2013). 따라서 이러한 원림의 원형경관 복원 작업은 어느 시기, 어떤 모습의 경관을 원형경관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sup>3)</sup>. 원형경관 복원의 기준과 원칙 부재로 인하여 양산된 문제들을 볼 때, 전통원림 복원에 대한 기준은 오랜 논의와 합의의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Kim, 2007: 83)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강진 백운동 원림<sup>4)</sup>은 2004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백운동 원림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백운동 권역을 포함한 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11월에는 백운동 원림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강진군 주최로 개최되어 백운동 원림의 원형에 대한 건축사학 및 조경학의 추가 연구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Gangjin Daily, 2016. 11. 10.). 현재까지 백운동 원림은 19세기 초반,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와 다산 정약용의 「백운동 12경」을 기준으로 삼고 복원되었으나, 본 연구는 원림 조성이 시작된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을 수용한 결과로서 ‘통시적 원형경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통시적 원형경관 해석을 통해서 백운동 원림의 향후 복원 방향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강진 백운동 원림의 바람직한 복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통원림의 원형경관 복원 시점의 선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2000년 ‘이탈리아의 역사적·정원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사)한국정원학회(현,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통경관의 복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드러난다. 이후 2005년 12월,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전통조경의 보존 및 복원기술과 정책’을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 역사경관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사)한국전통조경학회와 중국 승덕시 문물국이 공동 주최한 한중 전통조경 국제 세미나에서 전통정원 복원 기법에 관해 양국간 공동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최한 한·중·일 고정원 원형 연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궁궐정원을 대상으로 원형 복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원형경관 복원이 국제적 화두가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마을이나 마을숲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실제적 복원을 전제로 하여 전통공간 사례별 원형경관 복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초기 연구에서는 복원 기준이나 시점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고증 자료를 구축하여 원형경관을 추정한 성과로 Kim *et al.*(2004)와 Kim(2005)의 화성행궁 조경, Rho *et al.*(2008)의 다산초당, Jung *et al.*(2013)의 창덕궁 후원, Park *et al.*(2014)의 도산구곡에 대한 연구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Lee *et al.*(2015)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 성락원, 광한루원, 소쇄원 등 명승으로 지정된 원림 유적의 원형을 파악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간 복원된 전통조경공간에서 원형경관의 개념에 대한 원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원성과 시대성 개념이 부딪히는 사례로 경복궁은 19세기가 아닌 조선초기의 경관을 기준으로 한 복원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Ahn and Lee, 2014: 11)이 있으며, 시대성과 통시성 개념과 관련하여 「소쇄원 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보고서(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83)」는 소쇄원의 원형을 16세기 말로 설정하였으나, 「원림 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 담양 소쇄원(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2015)」에서는 시대적 변천에 따른 소쇄원의 원형을 되짚어 봄으로써 통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선농단의 위치 및 형식을 고증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2011)」에서도 복원 작업을 위한 고찰에서 선농단의 조성부터 근대 이후까지 경관의 변천 과정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초기의 모습을 원형으로 이

해하여 시원성을 지향하기도 했고, 특정 시기를 원형으로 보는 시대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된 역사적 결과물을 통해서 통시적 원형경관을 고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강진 백운동 원림에 관한 연구로서 Kim *et al.*(2006)이 백운동의 입지와 공간구성을 고찰하고, 복원 가능성을 제시한 조경분야 최초의 연구이며, Park *et al.*(2011)은 당시 복원 과정 중에 있는 현장을 실측하여 도면을 제시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서 백운동 원림의 승경과 곡수거의 특질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문학자 정민은 『강진 백운동 별서 정원(2015)』을 출간하였는데, 그는 입향조의 친필 자료 및 역대 명류들의 제영시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담양 소쇄원의 기록이 많다고 해도 작가의 면면과 작품의 양은 백운동 쪽이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하다고 언급하였다(Jeong, 2015: 5)<sup>5)</sup>. 강진군은 백운동 원림의 복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보길도 부용동원림, 소쇄원과 함께 ‘호남의 3대 별서’라고 홍보하며, 백운동 원림의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백운동 원림의 복원 사업에 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운동 원림의 복원 결과를 점검하고, 원림의 시대적 경관 변천을 수용하는 통시적 관점으로 원형경관을 해석하여 원림의 복원 시점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백운동 원림은 입향조 이담로(李聃老, 1627~1701) 당대부터 호남의 명원(名園) 중 하나로 손꼽혔기 때문에, 원림이 조성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백운동을 지켰던 주인과 방문했던 여러 명망가의 제영시 연작을 통해 원림의 존재와 풍광이 각인되었다(Jeong, 2015: 74). 이를 기준으로 하여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7~19세기로 설정하였다.

문헌 연구의 대상은 17세기 이담로가 기술한 『견한록(遣閑錄)』, 1812년 정약용과 제자들이 백운동 원림을 방문한 뒤 지은 시를 묶어놓은 『백운첩』, 1850년 이시현이 당시 백운동 생활을 기록하고, 백운동 원림을 읊은 시들을 묶은 『백운세수첩(白雲世守帖)』과 그의 문집인 『자이선생집(自怡先生集)』에 수록된 백운동 승경 연작시이다. ‘경(景)’과 ‘영(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승경 연작시는 한 번에 다양한 원림의 매력적인 경관을 묘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창작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17세기 후반 이담로가 『견한록』에 「백운동 8영」을 수록하였고, 18세기 중반에 강진으로 귀양 온 송익휘(宋翼輝, 1701~?)의 「백운동 10수(首)」가 있으며, 19세기 초반 정약용과 제자들이 지은 「백운동 12경」이 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중반 백운동 원림의 중흥조라고 할 만한 이담로의 6대손 이

시헌(李時憲, 1803~1860)이 정약용의 12경에 2경을 추가한 「백운동 14경」이 있다(Jeong, 2015: 153)<sup>6)</sup>. 문헌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sup>7)</sup>.

## 2) 연구의 방법

조경에서 관심을 가지는 원형<sup>8)</sup>경관과 관련하여 Kang *et al.*(2009)은 첫째, 특정 대상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보는 관점[original type], 둘째, 인류의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영속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상적이며 본질적 대상이라고 보는 관점[archetype], 마지막으로 시대마다 구분되는 표본으로서 원형경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prototype]으로 구분하였다<sup>9)</sup>. 이에 대하여 Lee(2016)는 첫 번째 유형은 원형의 시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정의이며, 두 번째 유형은 통시성을 중요시한 정의, 세 번째 유형은 시대성을 중요시한 정의라고 언급하고, 명승에 대한 원형 개념 적용의 틀을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형경관의 관점을 시원적 원형경관, 시대적 원형경관, 통시적 원형경관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복원해야 하는 대상지의 조영 당시 최초의 모습을 '시원적 원형경관', 이후 방문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표 경관으로서 '시대적 원형경관', 원림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으로써 시원적 원형경관과 시대적 원형경관들을 포괄하는 '통시적 원형경관'으로 이해하였다<sup>10)</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통시적 원형경관을 파악함으로써 백운동 원림의 복원 방향을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네 가지 승경 연작시의 시문에 묘사된 백운동 원림 구성요소들은 당시 원림의 원형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동시대 창작된 많은 시문들을 대표하여 시대적 원형경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연구는 이담로의 「백운동

8영」에서 시원적 원형경관 요소를 추출하고, 나머지 연작시에서 세 개의 시대적 원형경관 요소들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시원적 원형경관 요소와 시대적 원형경관 요소들을 종합하고, 공통된 항목을 구분하여 Table 2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원형경관 요소들을 복원 사업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 회화 자료인 「백운동도」에 위치시키고,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운동 원림을 4회(2015. 8/ 2015. 10/ 2016. 10/ 2017. 02)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복원 사업 결과를 파악한 후, 연구 결과로 정리한 통시적 원형경관과 비교하여 향후 백운동 원림의 복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 II. 강진 백운동 원림의 원형경관

### 1. 원림의 성립과 복원 과정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안운(安雲)마을에 위치한 백운동 원림은 17세기 말 조선중기 처사(處士) 이담로에 의해 조성된 별서이다(Figure 1 참조). 살림집은 6km 떨어진 성전면 금당리 연당 고택에 있었으며, 「백운동은(白雲洞隱)」이라는 그의 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담로는 과거 급제에 실패하고, 은거의 삶을 택하였다. 백운동 원림은 계곡 옆에 입지를 선택하여 자연과 인공을 적절히 배합한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룸으로써 전통원림의 특성이 돋보이는 정원이다. 김응정(金應鼎, 1527~1620)의 『해암문집(懈菴文集)』, 「제정선대(題停船臺)」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Jeong, 2015: 46-47), 백운동 일대는 당시 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지역이었다. 1678년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백운동을 방문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sup>11)</sup>, 이때 이미 백운동 원림이 조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Table 1. Major literature related to Baegun-dong Garden

Poetry collection	Author	Major literature	Recorded series poetry of scenic spot
『Gyeonhanilok (遣閑錄)』	Lee Damro (李聃老, 1627~1701)	「Baegun-dongmyeongseol (白雲洞名說)」 「Baegun-dongyuseogi (白雲洞幽棲記)」 「Baegun-donggwannureum (白雲洞觀物吟)」 「Baegun-donghanmyeonlok (白雲洞閑眠錄)」	Lee Damro, 「Baegun-dong 8Yeong」
『Baeguncheop (白雲帖, 1812)』	Jeong Yakyong (丁若鏞, 1762~1836)	「Baegun-dongdo(白雲洞圖)」	Jeong Yakyong, 「Baegun-dong 12 Gyeong」 Kim Changip (金昌緝, 1648~1722), 「Baegun-dong 8Yeong, 1678, Poemjip」
『Baegunsesuchoep (白雲世守帖, 1850)』	Lee Siheon (李時憲, 1803~1860)	「Baegun-dongmyeongseol (白雲洞名說)」 「Baegun-dongyuseogi (白雲洞幽棲記)」	Sin Myeonggyu(申命圭, 1618~1688), 「Baegun-dongchodang 8Yeong, 1682」 Im Yeong(林泳, 1649~1696), 「Baegun-dong 8Yeong, 1689」 Kim Changheup(金昌翕, 1653~1722), 「Baegun-dong 8Yeong, 1678, Samyeonjip」 Song Ikhwil(宋翼輝, 1701~?), 「Baegun-dong 10Su, 1744」
『Jaiseonsaengjip (自怡先生集)』			「Baegun-dong 14Gyeong, 1852」



Figure 1. Location of Baegun-dong garden, Gangjin

있다(Jeong, 2015: 51). 1736년 이담로의 둘째 손자인 이언길(李彦吉, 1684~1767)이 2대 주인이 되어 별서로 사용했으며, 이후 전국적 기근이 들자 1756년부터 이언길의 직계 가족이 생활주거공간으로 이용하였다. 1812년에는 정약용이 초의선사 등 그의 제자들과 함께 월출산을 주유(周遊)한 후, 4대 주인 이덕휘(李德輝, 1759~1828)의 초청으로 백운동 원림에 와서 시 연회를 열고, 시문과 그림을 남긴 이래로 많은 시인묵객들이 방문하였다.

백운동 원림은 5대 주인 이시헌 이후 쇠락하다가 6. 25 전쟁으로 크게 전소되고, 10대 주인 이효천(李孝天, 1933~2012)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었다. 강진군은 2004년 백운동 원림을 향토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랑채, 솟을삼문, 사당 등의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백운동권역을 포함한 월출산권 관광명승화 사업을 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서 백운동 계곡 생태탐방로 개설, 안채 및 12승경 복원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백운동 전시관, 한옥 체험관 건립, 월출산 명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Daily News, 2015. 2. 3.). 그러나 안운마을 인근에 사방댐 건설이 진행되면서 월출산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Gangjin Newspaper, 2015. 6. 14.), 백운동 원림을 휘감아 도는 계곡을 따라 추가 진입로를 내면서 계곡, 대나무 숲 등이 원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OhmyNews, 2015. 6. 3.). 「강진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2013. 2)」에 의하면 백운동권역 사업투자계획에 12경 복원, 테마형 자연생태공원, 백운암 복원, 삼림욕장, 승마 체험장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 2. 원림의 시원적·시대적 원형경관 요소

### 1) 「백운동 8영」의 시원적 원형경관 요소(17세기 후반)

이미 백운동 계곡에 설정되었던 정선대를 바탕으로 하여 완성시킨 백운동 원림의 시원적 경관은 이담로가 기술한 『견한록』, 「백운동명설(白雲洞名說)」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백운동은 월출산의 옛 백운사 아래 기슭에 있다. 앞쪽으로는 석대로 올라가 굽어볼 수가 있고, 뒤편에는 층층의 바위산이 옥처럼 서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 숲에 덮여 길이 희미한데 맑은 시내가 이를 비추며 둘러싸 있다. 시냇물을 끌어와 아홉 구비를 만드니 섬돌을 타고 물소리가 울린다. 냇가 바위 위에 ‘백운동(白雲洞)’이라고 세 글자를 새긴 것이 있다. 옛 이름을 따서 절고 그윽한 운치를 기록한 것이다(Jeong, 2015:58-59).”

이담로는 월출산 아래 백운사 기슭, 층층의 바위산(옥판봉), 소나무와 대나무숲, 맑은 시내가 있는 곳에 원림을 위치시켜서 석대(정선대)에 올라 조망하고, 정원 안에는 아홉 구비(유상곡수거)를 만들고, 시냇가 바위에 ‘백운동’이라고 새겼다. 또한 이담로는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에 아래와 같이 「백운동 8영」을 기록하였다.

“물에는 연꽃을 심어 천연스런 자태를 아끼고, 동산에는 매화로 해 맑은 품격을 숭상하며, 국화는 절개를 취해 서리에도 끄덕 않는 자태를 돌아본다. 소나무는 절조를 높여 뒤늦게 시드는 자태와 문채남을 시험하였다. 서성이다 흥이 일면 물가에는 대나무가 있고, 마음 맞음을 의탁하매 뜰엔 난초가 있다. 조롱에는 학을 두어 달빛에 울음 울고, 시렁에는 거문고가 있어, 바람에 소리 낸다. 이것이 백운동의 생활이다(Jeong, 2015: 62).”

또한 「백운동관물음(白雲洞觀物吟)」에는 「백운동 8영」을 설정한 이유가 기술되었다.

“하지만 봄에 앞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은 매화가 으뜸이고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시들지 않는 것은 소나무에서 그 절조를 취한다. 진흙탕에서 나왔으면서도 이들이들 깨끗해서 아꼈 만한 것은 연꽃이 그렇다. 저 물가를 바라보매 아름답게 흥취를 일으키는 것은 대나무다. 세 갈래 길로 나아가서 도연명(陶淵明)의 국화를 캐고, 구원(九畹)을 찾아가서 굴원(屈原)의 난초를 기른다. 화정(和靖) 임포(林逋)의 학이 아니라도 손님이 때때로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쁘고 백아(伯牙)의 거문고는 아니지만, 「아양곡(義洋曲)」의 여운을 떠올려본다. - 종락 - 이에 내가 8영으로 이를 물려서 숨어 사는 거처에 글로 써서 놓아두고 서성이며 자작하련다. 그 뜻은 한갓 사람의 이익을 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로써 사물을 살피려는 것이다(Jeong, 2015:64-65).”

이렇듯 「백운동 8영」에 해당하는 ‘연(蓮)’, ‘매(梅)’, ‘국(菊)’, ‘송(松)’, ‘죽(竹)’, ‘난(蘭)’, ‘학(鶴)’, ‘금(琴)’은 당시 선비들이 애호하였던 절조, 깨끗함, 흥취와 도연명, 굴원, 임포, 백아라는 인물의 고사와 관련된 사물에 깃든 의미를 주인의 삶과 연관지어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배치된 백운동 원림의 시원적 원형경관 요소였다.

## 2) 「백운동 10수」의 시대적 원형경관 요소(18세기 중반)

강진으로 귀양 온 송익회가 1744년 3월 백운동에 방문하여 노래한 「백운동 10수」는 치유의 공간으로 이해한 백운동 원림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하였다(Jeong, 2015: 227-229). 10수 중에서 1수, 2수, 4수, 6수에서 원형경관 요소가 표현되었다.

“봉우리가 늙은 종과 마른 선비 같아서/ 오묘조묘 뜰어봐도 살아 있는 그림 같네/ 오동 달과 단풍 바위 매화 대의 운치려니 주인옹이 꾸미느라 고생애나 했겠구려(1수)”

“3월도 상순이라 날씨가 청명하니/ 흰 구름 나를 당겨 서로 맞이하는 듯/ 길 따라 나무 푸르고 꽃 환한 길에서/ 고요히 냇가에서 새 울음소리 들노라(2수)”

“산 뚝고 난 한 줄기 길 호리병 속 같은데/ 여기는 세상 밖의 하늘이 낸 구역일세/ 구름 깊고 숲이 늙은 이곳 아껴 보노라니/ 이 속에 새끼 붉은 학이 있나 싶어진다(4수)”

“영산홍 편 소식을 편지로 전해 듣고/ 수선화 꽃 피기 전에 와서 구경한다네/ 농염함은 꽤철썩이 으뜸이라 하겠지만/ 이 꽃에 전한다면 심분 고을 사양하리(6수)”

송익회는 월출산 옥판봉 봉우리를 백운동 원림의 지표가 되는 지형경관으로 인식하고, 오동나무, 단풍나무, 매화, 대나무가 달빛과 바위에 어울린 모습으로 백운동 원림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또한 수선화가 있었으며, 영산홍은 백운동 원림의 아름다움을 절정에 이르게 한 식물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송

익회는 호리병처럼 좁은 동백나무 숲길을 따라 들어오면 별세계가 열리는 백운동 원림을 오래된 소나무와 학이 살고 있는 신선세계라고 설명하였다. 이담로가 백운동 원림을 조성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오동나무, 단풍나무, 영산홍, 수선화와 같은 수목과 식물이 추가되면서 원림은 아름답게 유지되었다.

## 3) 「백운동 12경」의 시대적 원형경관 요소(19세기 초반)

『백운첩』에 수록된 정약용의 「백운동 12경」은 백운동 원림 일대의 특정한 경관 12가지를 묘사하였다(Jeong, 2015:99-127). 1경 ‘옥판봉(玉版峯)’은 정선대의 정자에 올라서 볼 수 있는 월출산 구정봉 서남쪽 정상에 바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이다. 2경 ‘산다경(山茶徑)’은 원림 입구에 있는 동백나무숲 그늘에 조성된 좁은 길이다. 동백과 관련하여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마음을 뜻하는 ‘세한심(歲寒心)’이라는 표현으로 주인의 덕성을 높여 표현하였다. 3경 ‘백매오(百梅塢)’는 집 주변 언덕에 심었던 100그루의 홍매화 화단을 뜻하며, ‘암향(暗香)’이라는 매화 향기의 아름다움을 읊었다. 4경 ‘홍옥폭(紅玉瀑)’은 백운동 원림의 대문으로 들어서기 전 계곡의 풍단에 심겨진 단풍나무의 붉은 빛이 어린 폭포를 지칭한다. 시에 표현된 ‘죽정(竹亭)’은 사랑채인 취미선방 옆 계곡 쪽으로 붙여 지은 대나무로 엮여 엮은 정자를 가리키는데 멸실되었다(Jeong, 2015: 111). 5경 ‘유상곡수(流觴曲水)’는 계곡의 물을 끌어와 마당을 거쳐 돌아나가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한 아홉 굽이의 물굽이이다. 수로에 술잔을 띄우며 즐겼던 풍류를 읊었다. 6경 ‘창하벽(蒼霞壁)’은 풍단이 있는 석벽으로서 이끼로 인해서 푸르게 보이고, 정약용이 붉은 먹으로 쓴 글자가 있다. 7경 ‘정유강(貞莸岡)’은 용의 비늘처럼 생긴 겹질을 가진 몇 그루의 적송이 자라는 산언덕을 지칭한다. 8경 ‘모란채(牡丹砌)’는 본채 아래쪽에 모란을 심은 3단의 화계를 말한다. 영산홍, 국화 등 각종 화훼를 심었는데, 모란을 대표로 삼고 시를 읊었다. 9경 ‘취미선방(翠微禪房)’은 세 칸 초가의 사랑채로서 선방처럼 꾸밈이 없이 고즈넉한 집으로 묘사하였다. 10경 ‘풍단(楓壇)’은 창하벽 위에 단풍나무가 심겨진 단(壇)을 가리키는데, 붉은 비단 장막처럼 외부로부터 집을 차폐한다고 표현하였다. 냇가에 임한 ‘죽각(竹閣)’이 부서졌다고 기술하였다. 11경 ‘정선대(停仙臺)’는 창하벽 위 정유강 옆에 세운 정자로서 옥판봉의 장관이 조망된다. 인접한 담장을 기어오르는 ‘담쟁이’가 묘사되었다. 12경 ‘운당원(簞籥園)’은 왕대나무 숲으로서 높이가 구름까지 닿는다고 표현하였다.

살펴본 「백운동 12경」 중에서 백운동 원림 내원의 경관요소는 유상곡수, 모란채, 취미선방이며, 옥판봉, 산다경, 백매오, 홍옥폭, 창하벽, 정유강, 풍단은 원림의 외원에 속하는 자연경관 요소이다. 12경과 더불어 죽정(죽각), ‘창하벽’ 글자, 담쟁이이라는 원림의 경관요소들을 파악하였다.

## 4) 「백운동 14경」의 시대적 원형경관 요소(19세기 중반)

이시현은 1852년 스승인 정약용의 「백운동 12경」에 화답하여 2경을 보태었다(Jeong, 2015: 209-218). 1경 '백운동(白雲洞)'은 푸른 산(靑山) 속에 자리 잡은 원림의 이름을 구름의 무심함에 연결하여 이곳에 사는 주인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2경 '자이당(自怡堂)'은 '혼자 즐거워한다'는 뜻을 지닌 자신의 호를 따서 취미선방의 이름을 바꾸었다. 3경 '천불봉(千佛峯)'에서 불교도들이 옥판봉의 이름을 천불봉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을 애석해 하였다. 4경 '정선대(停仙臺)'에서 신선경을 읊었다. 5경 '백매원(百梅園)'에서 한겨울 추위 속에 핀 매화꽃 향기를 노래하였다. 6경 '만송강(萬松岡)'은 정유강 소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를 표현하였다. 7경 '운당곡(簞簫谷)'에서는 대나무숲에 죽실(竹實)이 익기 시작하였으니, 봉황이 깃들 날을 기약한다고 읊었다. 8경 '산다경(山茶徑)'은 겨울철 붉은 꽃이 피었을 때 가장 좋다고 하였다. 9경 '모란포(牧丹圃)'는 정약용이 지칭한 모란채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10경 '영홍채(映紅砌)'는 영산홍을 심은 화단이며, 영산홍을 보며 평상에서 차를 끓여 마시고 대나무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11경은 '창하벽(蒼霞壁)'이며, 12경은 '홍옥담(紅玉潭)'으로서 정약용이 폭포에 시선을 두었다면, 이시현은 폭포가 떨어지는 못을 감상하였다. 13경은 '풍단(楓壇)'이고, 14경은 '곡수(曲水)'로서 유상곡수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로써 「백운동 12경」과 동일한 경관요소의 명칭을 바꾼 경우를 제외하면, 원림의 물리적인 범위를 백운동(白雲洞)으로 확장하고, 송익희의 「백운동 10수」와 중복되는 영산홍과 함께 마당에 놓인 시설물로서 평상을 원림 경관요소로 추가 파악하였다.

### 3.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

이상에서 살펴본 시원적·시대적 원형경관 요소들을 종합하면, 백운동 원림의 입지와 관련되는 지형요소, 동물요소, 식물요소, 조형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 참조). 이것은 시문을 토대로 추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별 원림요소의 조영시기를 명료하게 규정하는 작업과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네 가지 시기의 원림경관 요소들을 통합하여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조영 시기나 개별 원림경관 요소의 시간성과 시대적 차별성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림경관 요소들의 위치를 「백운동도」에 표시하였다(Figure 2 참조).

백운동 원림은 옥판봉 아래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 가에 자리 잡았으며, 동백나무숲 속의 좁은 길을 통과하면 이담로의 바위굴짜가 새겨진 '백운동' 바위, 정약용이 '창하벽'이라고 붉은 색으로 글씨를 썼던 석벽, 풍단에 심겨진 단풍나무숲과 폭포, 오동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이 열린다. 담쟁이넝쿨이 기어오르는 별서의 경계 담장 바깥쪽으로 왕대나무숲, 홍매화숲, 소나무숲이 둘러졌다. 소나무숲 뒤편 언덕의 정선대에 오르면 옥판봉 바위산이 조망된다. 별서 담장 안쪽에는 기와집 본채와 초가집 사랑채인 취미선방, 계류 변에 만든 죽각이 있었다. 원림의 주인과 방문자들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화계에 심겨진 모란, 영산홍, 국화, 난초류, 수선화와 거문고 소리에 맞춰 마당을 거니는 학을 바라보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연꽃이 심겨진 방지를 지나, 담장 밖으로 흘러 나가는 아홉 굽이 곡수 옆에 앉아서 곡수연을 즐기기도 하였다.

## III. 강진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 해석

### 1. 원형경관 요소의 해석과 제안

#### 1) 지형요소

백운동 원림은 내원, 외원 그리고 영향권으로 구분되는데, '백운동(白雲洞)'이라고 표현된 것에서 원림의 원형경관은 원림과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광역적 의미의 경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강진군이 「백운동 12경」을 주축으로 진행한 복원 사업으로부터 복원의 물리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Figure 3-a~c 참조). 또한 옥판봉은 정선대에서 바라보는 상징적인 지형요소로서 시문에서 지속적으로 읊고 있

Table 2. The original and contemporary prototype scenery elements in Baegun-dong Garden's series poetry of scenic spot

Prototype scenery elements			「Baegun-dong 8Yeong」 Lee Damro, 1670s	「Baegun-dong 10Su」 Song Ikhw, 1774	「Baegun-dong 12Gyeong」 Jeong Yakyong, 1812	「Baegun-dong 14Gyeong」 Lee Siheon, 1850
Terrain elements (지형요소)	1	백운동 Baegun-dong	○ [백운동] Baegun-dong			○ [백운동(白雲洞)] Baegun-dong
	2	옥판봉 Okpanbong	○ [층층의 바위산] Rocky mountain	○ [봉우리[峯]] Mountain peaks	○ [옥판봉(玉版峯)] Okpanbong	○ [천불봉(千佛峯)] Cheonbulbong
	3	시내, 폭포 Valley	○ [맑은 시내] Clear valley	○ [냇가(泉飛)] Valley	○ [홍옥폭(紅玉瀑)] Hongokpok	○ [홍옥담(紅玉潭)] Hongokdam
	4	석벽 Stone wall			○ [창하벽(蒼霞壁)] Changhabyeok	○ [창하벽(蒼霞壁)] Changhabyeok



(Table 2. Continued)

Plant elements (식물요소)	5	홍매화숲 Red plum forest	○ [매(梅)] Red plum	○ [매화(梅)] Red plum	○ [백매오(百梅塢)] Baengmaeo	○ [백매원(百梅園)] Baengmaewon
	6	소나무숲 Pine forest	○ [송(松)] Pine	○ [솔(松)] Pine	○ [정유강(貞莪岡)] Jeongyugang	○ [만송강(萬松岡)] Mansonggang
	7	왕대나무숲 Bamboo forest	○ [죽(竹)] Bamboo	○ [대(竹)] Bamboo	○ [운당원(簞籬園)] Undangwon	○ [운당곡(簞籬谷)] Undangnok
	8	단풍나무숲 Japanese maple forest		○ [단풍(楓)] Japanese maple	○ [풍단(楓壇)] Pungdan	○ [풍단(楓壇)] Pungdan
	9	동백나무숲 Camellia forest		○ [나무(樹), 꽃(花)] Tree, flower	○ [산다경(山茶徑)] Sandagyeong	○ [산다경(山茶徑)] Sandagyeong
	10	오동나무 Paulownia tree		○ [오동(梧)] Paulownia		
	11	영산홍 Azalea		○ [영산홍(映山)] Azalea		○ [영홍채(映紅砌)] Yeonghongche
	12	모란 Peony			○ [모란채(牡丹砌)] Moranche	○ [모란포(牡丹圃)] Moranpo
	13	연꽃 Lotus	○ [연(蓮)] Lotus			
	14	국화 Chrysanthemum	○ [국(菊)] Chrysanthemum			
	15	난초 Orchid	○ [난(蘭)] Orchid			
	16	수선화 Daffodil		○ [수선화(金臺)] Daffodil		
	17	담쟁이 Boston ivy			○ [벽려(薛荔)] Byeongnyeo	
Animal elements (동물요소)	18	학 Crane	○ [학(鶴)] Crane	○ [학(鶴)] Crane		
	19	새 Bird		○ [새(鳥)] Bird		
Formative elements (조형요소)	20	사랑채 Sarangchae			○ [취미선방(翠微禪房)] Chwimiseonbang	○ [자이당(自怡堂)] Jaidang
	21	정선대 Jeongseondae	○ [석대] Seokdae		○ [정선대(停仙臺)] Jeongseondae	○ [정선대(停仙臺)] Jeongseondae
	22	죽정, 죽각 Jugyeong, Juggak			○ [죽정(竹亭), 죽각(竹閣)] Jugyeong, Juggak	
	23	곡수거 Gogsugeo(曲水渠)	○ [아홉 굽이] Nine hoops		○ [유상곡수(流觴曲水)] Yusanggoksu	○ [곡수(曲水)] Gogsu
	24	방지 Bangji(方池)	○			
	25	화계, 화단 Hwagye (terraced flower bed)	○		○ [채(砌)] Pile up stones	○ [채(砌)] Pile up stones
	26	‘백운동’ 바위글씨 ‘Baegun-dong’ the carved rock letter	○ [세 글자] Three letters			
	27	‘창하벽’ 붉은 글자 ‘Changhabyeok’ the red letter			○ [대자염성주 (大字染猩朱)] Daejayeomseongju	
	28	평상 Pyeongsang				○ [탑(榻)] Pyeongsang
	29	거문고 Lyre	○ [금(琴)] Lyre			





Figure 2. The diachronic prototype scenery elements of Baegun-dong Garden(pointed on 「Baegun-dongdo」)

는데, 현재 앞쪽 숲이 무성해지면서 여름철에 시야를 가리므로, 옥관봉이 잘 보이도록 수목에 대한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Figure 3-d 참조). 백운동 계곡은 진입로를 만들면서 시행된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운치가 떨어졌다. 또한 백운동 계곡의 물은 '홍옥폭'과 '홍옥담'이라고 이름 붙은 다양한 수경관을 제공하여 승경을 구성하고, 내원의 곡수를 이루는 수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백운동 원림 인근의 설록다원강진이 조성될 때 큰 도로를 내면서 물길이 끊긴 상태여서 평상시 물의 흐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Figure 3-e, f 참조). 따라서 백운동 원림에서 중요한 원형경관을 제공하는 수원 확보가 요구된다. '창하벽'이라고 명명된 석벽에는 푸른 이끼가 뒤덮여 있어서 그 이름의 유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Figure 3-g 참조).

## 2) 동·식물요소

홍매화숲, 소나무숲, 왕대나무숲, 단풍나무숲, 동백나무숲은 백운동 원림을 대표하는 식생경관이다. 특히 이담로가 조성한 시원적 경관에서부터 지칭되었던 홍매화는 '백매오(百梅塢)', '백매원(百梅園)'이라고 묘사된 것으로 보아, 화오를 조성하거나 일정한 영역에 대량 식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3-m 참조). 「백운동도」에는 정선대 옆에 한 그루가 그려졌고, 현재는 안채 왼편 담장 아래와 취미선방 아래쪽 담장 밑에 두 그루가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Figure 3-h 참조), 추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식이 필요하다. 정선대 주변 소나무숲은 '정유강(貞莸岡)', '만송강(萬松岡)'으로 읊어졌고, 「백운동도」

에서 몇 그루가 줄지어 묘사되었다. Park *et al.*(2011)의 실측 도면에는 세 그루, 현장에는 두 그루가 남겨졌으니, 적송 역시 보식이 필요하다(Figure 3-i 참조). 반면에, 왕대나무숲, 단풍나무숲, 동백나무숲은 울창한 식생 군락이 유지되어 있다(Figure 3-j~l 참조).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에서 화계와 관련하여 '모란채(牡丹砌)'와 '모란포(牡丹圃)'라고 명명된 모란과 '영홍채(映紅砌)'라고 명명된 영산홍은 화려한 봄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되어야 한다. 현재 화계에 모란이 식재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n 참조). 또한 『자이선생집』에 기술된 「분국십수화회사(盆菊十首和晦沙)」를 통해서 백운동에서 재배하던 국화의 품종이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Jeong, 2015: 239), 전통 품종을 선정하여 화계와 담장가에 적절히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복원된 담장에는 담쟁이가 식재되었다(Figure 3-o 참조). 그밖에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없는 오동나무, 난초류, 수선화 식재를 고려하고, 현장조사 시 비위진 방지에는 연꽃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sup>.

또한 조선시대 선비들이 북송시대 처사의 삶을 살았던 임포(林漣)의 고사를 토대로 하여 학을 은일자의 고고한 삶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에(Kim and So, 2012: 65), 백운동 원림의 시원적 경관을 구성하는 동적(動的) 요소로서 학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백운동 원림을 읊은 시에서도 언급되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는 학을 사육하는 정원들이 일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일본 고라쿠엔[後樂園]이며, 매년 1월 1일 복을

























Terrain elements				
	a: Baegun-dong entrance view	b: Wolchul mountain near the green tea field	c: View of the Okpanbong from outside the garden	d: View of the Okpanbong from Jeongseondae
				
	e: Baegun-dong valley	f: Hongokpok, Hongokdam	g: Stone wall 'Changhabyeok'	
Plant elements				
	h: Red plum forest	i: Pine	j: Bamboo forest	k: Japanese maple(Pungdan)
				
	l: Camellia forest	m: Azalea (Jeong, 2015: 216)	n: Peony	o: Boston ivy
Formative elements				
	p: Salangchae(Chwimiseonbang)	q: Goksu(curve-stream)	r: Goksu(upper pond)	s: Goksu(lower pond)
				
	t: Jeongseondae	u: Hwagye(terraced flower bed)	v: Flower bed(Baengmaeo)	w: 'Baegun-dong' the carved rock letter
Guide boards				
	x: guide boards of Baegun-dong Garden			y: Guide board of 'Baegun-dong 12Gyeong'

Figure 3. The restoration present status of Baegun-dong Garden



기원하며 학을 풀어놓는 행사를 진행한다(Kim and So, 2012: 58).

### 3) 조형요소

‘취미선방(翠微禪房)’ 혹은 ‘자이당(自怡堂)’이라고 명명된 사랑채(Figure 3-p 참조)와 ‘정선대(停仙臺)’는 초가로 가장 먼저 복원되었으며(Figure 3-t 참조), 이후 사당이 복원되고 2017년 현재 안채는 복원되지 않았다. 원림 건축물로서 죽정(죽각)의 복원이 남아 있다. 또한 유상곡수와 관련하여 1722년 백운동에 방문한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남유록(南遊錄)」에 “언열이 죽자 이 또한 폐하여진 지가 오래다(Jeong, 2015: 224)”라고 기록하였으며, 1812년 작성된 「백운동도」에도 유상곡수는 표현되지 않았다. 현재 마당에는 유구 실측을 통해서 초정과 함께 직각의 유상곡수와 연결된 상지(上池), 하지(下池)를 복원하고, 상지에는 2개의 괴석을 올려놓았다(Figure 3-q~s 참조). 백운동 원림의 직선형 곡수거는 특이한 형태이지만(Park *et al.*, 2011: 105), 대전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의 종가 마당에서도 모정(茅亭: 光影亭), 지당[배회담(徘徊潭)], 직선 수로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곡수거와 방지는 원림의 주요 구조물이므로, 원림의 원형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유상곡수의 물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취미선방 아래쪽 마당까지 ‘모란채’와 ‘영흥채’라고 불렀던 3단의 화계가 복원되었고(Figure 3-u 참조), 내원의 담장 앞쪽과 계곡쪽 담장 바깥에는 ‘백매오’로 추정되는 석축 화단이 보수되었다(Figure 3-v 참조). 또한 이담로가 새긴 ‘백운동’ 바위글씨는 현존하지만(Figure 3-w 참조), ‘창하벽(蒼霞壁)’이라고 썼다는 정약용의 붉은 글씨는 남아 있지 않다. 『백운첩』에 정약용이 친필로 쓴 ‘창하벽’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으므로, 복원이 진행될 때 이것을 확대해 각자(刻字)를 해둘 것을 제안한다(Jeong, 2015: 116).

## 2. 기타

현재 백운동 원림은 동백나무 숲길에 인접한 안운 주차장과 북쪽 강진 월출산다원 주차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문화재해설사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월출산다원 주차장에서 백운동 계곡으로 내려가 ‘백운동’ 바위글씨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월출산다원에 인접한 출구에서 해설을 마치는 동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이용한 진입로였던 동백나무 숲길을 통해서 원림에 진입할 때의 원형경관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백운동 원림의 안내 시스템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복원 현장에는 형태와 재료 등 디자인이 다른 안내판들이 혼용되었고, 백운동 원림에 대한 일반적 소개나 백운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여러 곳에 중복 설치되었다. 특히 마당 안에 큼직하게

설치된 「백운동」 안내판은 원림을 향하는 시선을 가로막고 있으며(Figure 3-x 참조), 승경지마다 배치된 「백운동 12경」의 안내판 역시 원림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규모와 위치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Figure 3-y 참조).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유산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문화유산과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디자인과 관련하여 단일 재료를 사용하고, 형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2010).

‘원림은 작정자의 철학과 학문적 이상을 표현함은 물론, 인간적인 정서와 취향이 반영된 자신만의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Hong, 2005: 3)’이라는 점에서 강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의 백운동 전시관과 한옥체험관 설립 시 원형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입지를 선정하고, 형태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자연 친화형 생태공원’ 추진이라는 목표나 표현은 백운동 원림의 원형경관 복원 사업의 태도와 상충되는 개념이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sup>13)</sup>.

## IV. 결론

본 연구는 전통조경공간의 원형 복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 특히 사례마다 복원의 기준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현재 복원이 진행된 강진 백운동 원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형경관 복원의 기준 시점으로 서 통시적 접근을 적용하고, 향후 복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원림의 경관을 읊은 승경 연작시로서 17세기 후반 이담로의 「백운동 8영」, 18세기 중반 송익회의 「백운동 10수」, 19세기 초반 정약용의 「백운동 12경」, 19세기 중반 이시현의 「백운동 14경」을 파악하고, 이들 시문에서 시원적 원형경관과 시대적 원형경관의 구성요소 29개를 추출, 통합하여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을 해석하였다.

옥판봉 아래 계곡에 자리 잡은 백운동 원림은 동백나무 숲길, 이담로의 ‘백운동’ 바위글씨, 정약용이 붉은 글씨를 썼던 ‘창하벽’, 풍단의 단풍나무숲과 폭포, 오동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이었다. 별서 담장 밖으로 홍매화숲, 소나무숲, 왕대나무숲이 있고, 독특한 바위가 아름다운 옥판봉이 조망되는 정선대가 있었다. 별서 마당에는 취미선방, 죽각, 평상이 놓이고, 연꽃이 심겨진 방지와 곡수거가 배치되었으며, 모란, 영산홍, 국화, 난초류, 수선화가 심겨진 화계가 놓이고 학이 노닐었다. 소박하고 단출한 정원 건축물, 화계, 곡수거를 기반으로 하여 선비가 좋아하던 다양한 식생으로 구성된 계절별 화사한 경관이 특징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 진행된 백운동 원림 복원의 기준이 된 「백운동 12경」에 묘사되지 않았던 다양한 식물, 동물, 그

리고 정원 구조물 및 시설물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원림을 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에서 세 시기 이상 중복된 옥판봉, 시내·폭포, 석벽, 홍매화숲, 소나무숲, 왕대나무숲, 단풍나무숲, 동백나무숲, 정선대, 곡수거, 화계의 경우, 오랜 시간 공유되었던 경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백운동 원림의 통시적 원형경관과 복원된 현장을 비교한 결과, 백운동계곡의 수원 확보, 죽정 복원 및 '창하벽' 바위글씨 새김, 정선대에서 옥판봉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목 관리 외에 홍매화, 소나무, 오동나무, 영산홍, 국화, 난초류, 수선화, 연꽃이 보식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구조물의 복원을 통해서 백운동 원림의 골격이 잡혀 있으나, 여기에 식재경관을 세심하게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문자가 진정성 있는 원형경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한 통합 안내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또한 입향조 이담로의 인식과 함께 「백운동 14경」에서 '백운동'이 하나의 경으로 선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백운동 원림 복원 사업의 물리적 범위를 원림에 인접한 일대 영역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향후 백운동 원림이 경영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공간에 거주하고 방문하였던 이들이 누렸던 경관들을 통합한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면 방문자에게 더욱 풍성한 경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백운동 원림 복원 사업의 진행 과정은 향후 진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주 1. 『백운첩』은 1812년 음력 9월,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이 월출산을 구경하고, 하룻밤 묶게 된 백운동 원림의 절경을 담은 서시를 포함한 13수의 시문과 함께 초의선사가 그린 「백운동도」를 맨 앞장에, 「다산도」를 맨 뒷장에 담은 시화첩이다. 당시 5대 집주인은 이덕휘로 아들 이시현이 정약용의 막내 제자였던 인연이었다(Jeong, 2015: 78, 82-83 참조).
- 주 2. 「다산도」에는 현재의 다산초당과 달리 마당 경계부에 담장이 둘러졌으며, 담장 아래쪽에도 방지가 묘사되었다.
- 주 3. 경복궁은 1395년 조선 건국의 시점이 아닌, 19세기에 제작된 「북벌도」를 따르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쇄원은 1530년대에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별서를 조성한 즈음, 김인후가 읍은 「소쇄원 48영(1548)」과 1755년 제작된 목판 「소쇄원도(瀟瀟園圖)」가 남아 있어서 두 시기의 정보를 기준으로 원형경관을 추정한다.
- 주 4. 선행 연구로서 Kim *et al.*(2006)는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Park *et al.*(2011)은 '강진 안운마을 백운동원림'이라고 논문 제목을 표현하였다. Jeong(2015)의 단행본 제목은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이지만, 본문에서 '백운동 원림'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백운동 원림의 안내판도 '백운동 정원'과 '백운동 별서정원'을 혼용하였다. 본 연구는 '예천 초간정 원림', '담양 명옥헌 원림', '안동 만휴정 원림', '화순 입대정 원림' 등 문화재로 지정된 명승의 명칭을 참고하여 '강진 백운동 원림'으로 지칭하였다.
- 주 5. 제1장. 강진의 전통 원림 백운동 별서정원, 제2장. 백운동 별서의 연원과 내력, 제3장. 『백운첩』의 백운동 12경과 다산의 편지, 제4장.

- 백운동을 노래한 역대 인물과 시문, 제5장. 백운동과 강진의 차문화,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총 367쪽에 달한다.
- 주 6. 이들의 제자들에게 의한 일련의 작품군이 잇따라 창작되었는데,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흠(金昌翕, 1653~1722), 신명규(申命圭, 1618~1688), 임영(林泳, 1649~1696)이 이담로의 「백운동 8영」에 차운한 시들이 있으며, 황상(黃裳, 1788~1870)과 이시현은 정약용의 「백운동 12경」에 차운한 시를 남겼다.
- 주 7. 정민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2015)』에서 백운동 원림의 원형경관을 해석할 수 있는 문헌 정보와 자료를 추출하고, Table 1을 정리하였다.
- 주 8. '원형'과 관련하여 세 개의 한자어가 사용되는데, '原型(prototype)'은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이라는 의미이며, '原形(original form)'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을 말하고, '元型'은 생긴 현상이 형식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적·발생적으로 같으면 같은 원형에 속하며, 생물학, 심리학 등에서 사용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 주 9. 이와 관련하여 Ahn and Lee(2014)는 조선시대 궁궐정원의 원형경관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준거의 틀로서 통시성과 공시성, 시원성과 시대성, 불변성과 변형성이라는 여섯 가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 주 1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원형경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시원적 원형경관', '시대적 원형경관', '통시적 원형경관'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시원적 원형경관'이라는 표현에서 개념이 중복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원형경관과 동일한 맥락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 주 11. 『몽와집(夢窩集)』 권4, 「남천록(南遷錄)」의 「술회(述懷)」편.
- 주 12. Park, *et al.*(2011)은 1722년 마당의 유상곡수가 폐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그 이전 어느 시기까지 '못에는 연꽃을 길렀다'는 기록과 '유상곡수의 풍류행위를 즐겼다'는 설명 상호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언급하였다(106쪽).
- 주 13. '본 사업은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월출산권(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백운동 정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생태공원으로 추진코자 정비 중이오니,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백운동 원림의 입구 안내판, 2015. 10. 17 확인).'

## References

1. Ahn, G. B. and W. H. Lee(2014) A proposition on landscape restoration of Joseon Dynasty's Palace Garde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10-20.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1983) Soswaewon Garden Conservation Maintenance Planning and Design Report.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9) Guidelines for Cultural Properties Guidebooks and Improvement Casebooks.
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0) Cultural Heritage Public Design Guidelines.
5. Hong, H. S.(2005) Characteristics and building background of Namganjeongsa(南澗精舍) and its landscape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3(1): 1-13.
6. Jeong, M.(2015) Baekwoondong Gangjin, Paju: Geulhangari.
7. Jung, W. J., L. C. Oh and W. K. Sim(2013) Study on the prototype of the rear garden in Changdeok Palace through Gang Sehwang's 「Record of strolling with king in the forbidden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3): 87-97.
8. Kang, Y. E., D. W. Choi, S. H. Hong, Y. H. Jung, S. B. Kim and S. B. Im(2009)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factors of formation of the prototypal landscap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5(4): 33-42.
9. Kim, Y. M.(2005) The study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restoration

- of the Whasung local pal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3(3): 50-60.
10. Kim, H. G. and H. S. So(2012) Cranes(*Grus japonensis*) adopted as a traditional factor in landscaping and gardening cultu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3): 57-67.
  11. Kim, S. J., H. J. Jung and W. K. Sim(2006) Basic studies on the Baekwoondong Byeolsoe Garden in Gangjin County, Chonna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location and spatial composi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4): 51-61.
  12. Kim, Y. M.(2007) A preliminary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principles of traditional garde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72-85.
  13. Kim, Y. M., Y. S., S. C. Chin and J. S. Jang(2004)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restoration of vegetation landscape around the Whaseong local pal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2(4): 39-53.
  14. Lee, W. H.(2016) Problems of application of prototype concept in natural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Heritage 49(1): 166-177.
  15. Lee, W. H., J. W. Kim, D. H. Kim and H. I. Ahn(2015)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garden restor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ring Conference 16-19.
  16. Lim, E. J. and H. S. So(2013) Landscape gardening culture in late Joseon Dynasty depicted in 'Ahoi-do' painting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46-57.
  17.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2015) Scenic Site No. 40 Soswaewon Garden, Damyang: Study on the Traditional Space Creation Technique.
  18. Park, E. H., W. G. Jang, M. G. Youn and J. K. Lee(2014) A study on prototype landscape of Dosangugok -Focused on valley 4 Boonche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2): 95-105.
  19. Park, Y. J., H. G. Kim, J. H. Rho, H. O. Kim and Y. B. Goh(201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ater space and scenic spot of Baegundong Wonlim in Gangjin Aaun Villag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2): 99-107.
  20. Rho, J. H., S. S. Shin and Y. J. Park(2008) The prototype scenery research of Dasanchodang represented in 'Dasando(茶山圖)'.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6(2): 31-41.
  21.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2011) Academic research service to confirm the location and type of Seonnongdan,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22. Daily News, 2015. 02. 03.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50>)
  23. Gangjin Daily, 2016. 11. 10. (<http://www.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5>)
  24. Gangjin Newspaper, 2015. 06. 14. (<http://www.gj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9>)
  25. OhmyNews, 2015. 06. 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4985&CMPT\\_CD=P00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4985&CMPT_CD=P0001))

Received : 28 February, 2017

Revised : 26 April, 2017 (1st)

31 May, 2017 (2nd)

Accepted : 31 May, 2017

4인익명 심사필